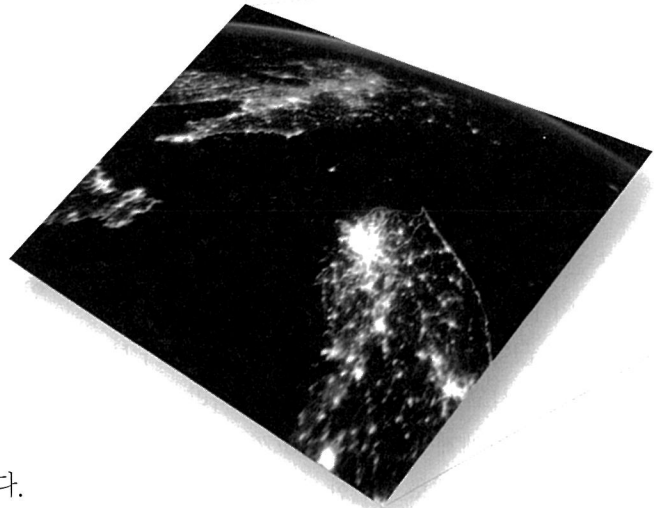


# 한반도의 서로 다른 밤



이진주 기자  
한국전기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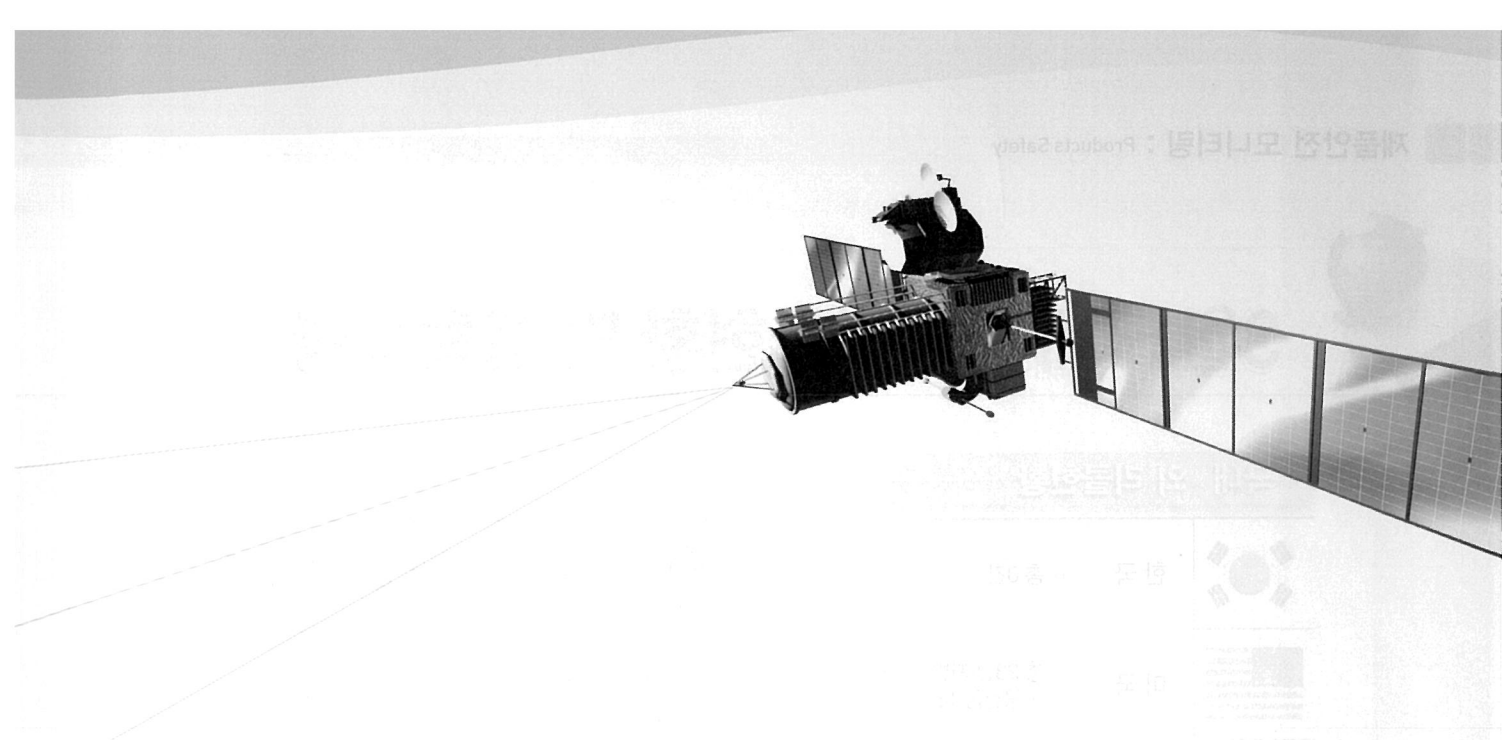


얼마 전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이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남북한의 서로 다른 밤 모습이다. 북한은 평양 등 극소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깜깜했다.

전력량 부족으로 남한 및 중국과 대조적인 것은 물론이고, 바다와도 구분되지 않는 모습  
이었다. 과거 일부 북한 언론들이 '평양시내는 깊은 밤에도 여러 곳에 설치된 네온장식으로  
새벽까지 밝혔다'고 보도했던 것과는 한참 멀어보였다.

예상대로 북한의 전력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8,180만6,000kW인 반면 북한은 722kW다. 이마저도  
시설이 낡아 가동률이 낮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20~30%라는 것을 감안,  
발전시설 가동률 역시 이와 비슷해 연간 155만kW에서 226만kW 수준의 전력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탄 생산량 역시 남한은 209만4,000t인데 비해 북한은 2,580만t  
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때문인지 북한은 연초부터 전력과 석탄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순천·덕천·북창 등 각지 탄광연합기업소를 새로 단장, 석탄 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력, 석탄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 동력이며, 석탄은 공업의 생명선”이라고 피력했다.

노동신문은 또 “전력과 석탄 생산에 힘을 집중해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오늘의 경제 사업에서 이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의 전력부족을 추측할 수 있는 신문보도는 연일 이어졌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 동력이며 석탄은 공업의 생명선이다. 또 전력·석탄산업의 증산은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다.”

“전력·석탄 산업이 발전해야 비료 생산을 활성화해 농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금속·화학공업과 경공업, 철도·운수 부문에도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전력과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문 일꾼들이 새로운 열정, 새로운 포부에 넘쳐 신들메(끈)를 바싹 조이고 분발해 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의 사설이 올 초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관철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모습에 우월함이나 안타까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전력 생산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